

식품산업은 식량공급의 주체 “식량정책 일대 전환 필요합니다”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철호 명예이사장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에서는 우리나라의 식량위기를 직시하고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연구, 캠페인 활동을 해오고 있다. 13년 전 식량안보연구재단의 제안자이자 현재는 명예이사장으로 일하며 식량주권 확보에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철호 이사장을 만났다.

Editor 장서영



팬데믹 이후 물류대란, 곡물가 급등 등으로 식량위기가 피부에 와닿습니다. 현재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시는지요.

가속화되는 글로벌 기후변화, 코로나19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등 식량위기를 일으킬 요인들이 점차 가중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신 냉전시대의 도래로 글로벌 무역자유화 시대는 끝나가고 자국 우선 보호무역시대로 회귀하는 세계경제 속에서 수출에 의존하던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이 예견되고 있죠. 돈만 있으면 무제한 사 먹을 수 있었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사 올 수 있는 식량이 고갈되고 전염병이나 지역분쟁으로 수입 항로가 막히고 물류 대란으로 식량을 공급받기 어려운 상황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식량 위기의 징후나 우리가 처한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는.

곡물자급률이 20%에 불과한 한국의 식량안보를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 수치는 만일 한반도에서 전쟁이나 경제제재, 전염병 등으로 외국의 화물선이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2개월 이내에 먹을 식량이 소진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식량안보 해법으로 비축을 강조하셨는데요.

식량위기가 예측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비축입니다.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있는 한국은 통일 비축미 명목으로 120만톤을

항시 비축하는 것을 법으로 정해야 합니다. 매년 60만톤의 쌀을 2년간 비축했다가 반값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쌀가공식품산업에 방출한다면 관련 산업도 육성하고 쌀 소비도 촉진하는 1석 3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상황에서 제일 먼저 위험에 노출되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1인당 월 10kg의 쌀 또는 쌀 가공식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식량위기 시대에 국가 재정을 이런 일에 사용해야 하고 식량안보특별법을 제안하는 이유입니다. 이 두 가지 사업으로 연간 80~90만톤의 쌀 수요창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지금 생산되는 쌀이 오히려 부족하고 쌀값이 안정될 것입니다.

말씀 중 식품산업의 식량안보적 기능에 대해 설명해 주신다면.

식량공급 측면에서 농수산업의 기여도 보다 식품산업의 기여도가 4배가량 높습니다. 이제는 외식산업을 포함한 식품산업이 식량공급의 주체입니다. 쌀의 소비를 늘리려면 외식산업과 식품산업에서 맛있는 쌀 음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쌀의 자급에 부족한 나머지 쌀의 수요창출에 실패한 결과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7월 20일 농식품부와 aT,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이 함께 개최한 '대한민국 식량안보 심포지엄'



최근 재단에서 「한국 식품산업의 세계 비전」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어떤 점을 눈여겨보면 좋을지요.

우리나라는 원시토기문화의 발상지로 신석기시대부터 토기에 음식을 끓여 먹는 음식문화를 시작했습니다. 서양의 육식 구이문화와 달리 단단한 곡물이나 줄기, 뿌리들을 끓여 부드럽고 소화가 잘되는 찌개와 탕을 주식으로 하는 곡류/채식문화와 발효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우리의 콩 가공식품인 장류와 두부 등은 단백질 대체식품으로 환경위기와 식량위기에 직면한 현대사회에서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 천 년 동안 사용해온 전통식품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있는 것이지요.

식량안보를 가로막는 장애물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2050년에는 세계인구가 90억을 넘게 되고 현재보다 1.7배의 식량을 생산해야 합니다. 한정된 경작지에서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늘리려면 다수확 품종을 개발해야 하며 여기에는 생명공학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생명공학 신식품(GMO)은 철저한 안전성 검사를 거쳐 전 세계 과학계와 정부가 사용을 인정한 것으로 잘못된 인식은 하루속히 개선해야 합니다. 또, 음식낭비를 줄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음식의 1/3이 쓰레기로 버려집니다. 우리 재단은 식품산업을 중심으로 식량낭비 줄이기 국민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를 비롯해 온 국민이 합심, 식량낭비를 지금의 반으로 줄이면 식량(열량)자급률을 50%로 올릴 수 있습니다.